

知足堂 權讓의 『永嘉家訓』 研究*

鄭 敬 薰**

<目次>

I. 서론	III. 『永嘉家訓』의 편찬경위와
II. 생애와 가계	내용분석
1. 생애	1. 편찬경위
2. 가계	2. 내용분석
	I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학계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知足堂 權讓과 그의 저서인『永嘉家訓』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권양은 조선전기 훈구문벌의 집안으로 陽村 權近의 9대손이었다. 그러나 翫齋 權擘과 石洲 權鐸 이후 한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정착지인 충청도 한산으로 이주하여 지역 문벌을 형성하였다. 그의 네 아들 遂初堂 權忭, 霽明齋 權擘, 盤谷 權遂, 寄傲軒 權傑 등의 과거 급제는 한산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된 환로의 진출을 통해 지방 명문 문벌가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증손자인 震溟 權攄 때에 이르러 한산의 안동 권씨는 충청도 유림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권양이 『영가가훈』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고려 말 때부터 ‘一家九封君’의

* 본고는 2013년 12월 13일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와 서천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서천지명탄생6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juilam@hanmail.net

영예와 권근 부자의 현달, 권벽과 권필 부자의 文豪의 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자손들의 교육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권양은 영광스러운 가문의 복귀에 앞서 자손을 바르게 가르쳐 훌륭한 인격자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물이 『영가가훈』이었던 것이다.

『영가가훈』은 현재 3종의 이본이 확인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수록된 내용은 여타 조선시대 가훈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윤리적 교훈으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법도가 주된 내용들이다. 修己와 學業, 治家, 處世 등 어린 자손들 뿐 만 아니라 모든 친족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지침서를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것은 그가 경화사족에서 지역 토착 문벌의 형성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영가가훈』은 이러한 내용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知足堂, 權讓, 永嘉家訓, 修己, 學業, 治家, 處世

I. 서론

본고에서 살펴 볼 知足堂 權讓(1628-1697)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그의 저서 『永嘉家訓』¹⁾은 1977년 그 전문이 소개된 바 있지만 아직 연구가 전무한 현상이다.²⁾

권양은 陽村 權近(1352-1409)의 9대손으로 習齋 權擘(1520-1593)의 증손자이며 石洲 權鞞(1569-1612)의 손자이고 震溟 權攄(1713-1770)의 증조부로 충청도 한산의 안동 권씨 世居에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그의 부친인 釋老 權侁은 광해군 시대 정치적 혼란과 1612년 권필의 被禍로 인해

1) 『永嘉家訓』은 현재 세 가지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 3종의 판본 모두 내용과 구성, 체제는 같으나 제목이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영가가훈』을 저본으로 삼았고 통칭하기로 한다.

2) 金種權, 『名家の家訓』, 家庭文庫社, 1977.

농장이 있었던 충청도 韓山으로 이주한 이후 이곳에서 세거를 하게 되었다.³⁾

家訓이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후손이나 자녀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을 말한다. 이러한 家訓은 한 가정의 전통적인 道德觀으로 삼게 되는데, 또한 家教·家誠·家憲·家儀·家學·家法·家範·家規·家庭敎訓·庭敎·庭訓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고 이미 오랜 과거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했던 글이다.

가훈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방향은 크게 조선시대부터 각 가문의 가훈을 발굴과 현대적 가정교육과 연계되어 아동교육 연구로 나뉠 수 있다.⁴⁾ 이후 연구 성과가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의 인식 확대에 찾을 수 있다.

『영가가훈』은 권양이 오랜 관직 생활에서 얻은 삶의 지혜와 壬丙兩亂 이후 서울에서 한산으로 이거하며 향촌 토착 세력으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만든 후손들의 기초 교육서이다. 또 조선 시대 가정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지식 획득 등을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인격형성의 지침서의 하나로 한산 지역 안동 권씨 세거의 기반을 조성한 권양의 특별한 가정교육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가가훈』은 1970년대 김

3) 권전은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화평이 이루어지자 이후부터는 한강을 건너 지 않는 절의를 보이기까지 한 인물이다.(『舒川郡誌』 卷8, 「行實編」, 1929.)

4) 金種權, 『名家의 家訓』, 家庭文庫社, 1977.

孫直銖, 「朝鮮時代 女性敎訓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孫仁銖·李元浩, 『韓國人의 家訓』, 文音社, 1984.

柳岸津,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敎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沈貞烈, 「顏氏家訓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해준, 『초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 신서원, 1998.

박상희, 「家庭에서의 子女敎育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낙찬·이동기·채희균, 『한국의 전통 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鄭茂坤, 「조선시대 가훈서의 교육학적 해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종권에 의해 소개만 되어졌고 연구는 전무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권양에 대한 소개나 연구조차도 없어 그 대강을 살펴 볼 수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권양의 생애와 先系, 後孫의 계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영가가훈』의 저술 배경과 내용을 통해 권양의 한산 정착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II. 생애와 가계

1. 생애⁵⁾

權讓의 본관은 안동이며 字는 禮卿, 호는 知足堂이다. 1628년(인조 6) 3월 18일 戌時에 충청도 한산 광생리에서 아버지 權侁과 어머니 陽川 許氏 사이에서 태어났고, 1697년(숙종23) 1월 3일 巳時에 한산 知足堂에서 70세로 졸하였다. 그는 평소 소박하고 청빈을 좋아해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아 평소 安分知足의 삶을 동경하자 玄石 朴世采가 그의 아호를 ‘知足堂’이라 지어주었다.

사실 안동 권씨의 본격적인 한산 이주는 권양의 부친인 권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권전은 작은 아버지 권필의 被禍로 인해 농장이 있었던 한산으로 이주한 이후 세거를 하게 되었다. 그의 이주는 한양의 권문세족에서 지방의 토착세력으로 이주를 뜻하기도 하였다. 조선 개국 초기부터 훈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양에서의 세력 확장을 모색해 왔지만 몇 차례 사회와 훈구세력의 몰락에 권전의 집안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권양은 몇 번의 외직으로 한산에서 벗어나 생활을 했지만 그의 모친이 계속 한산에서 거주하였고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나 계속 한산에서

5) 이하 생애는 필사본 『知足堂遺稿』의 「年譜」와 「行狀」(權忭), 「先考墓表陰記」(權忭), 「先君行錄」(權楮), 「先府君墓誌」(權楮), 「遺事」(權攄)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기거하면서 이때부터 안동 권씨의 한산지역 세거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병자호란(1636)에 청나라 병사가 청양의 定山과 한산까지 내려오자 잠시 한산에서 피난을 갔지만 이후 다시 한산 大泉洞에서 기거하였다.

7세 때부터 文才를 드러낸 권양은 10세 때(1637) 그의 형인 知事公 權說(1615-?)에게 수학을 하며 가학을 계승하였다.

20세(1647)에 남양 홍씨 從仕郎 洪思道の 딸과 결혼하였다. 23세(1650) 때 생원 初試에 합격하고 서울 會試에 나갔지만 천연두로 인해 응시를 포기하였고 이듬해(1651) 다시 회시에 응시했지만 낙방하였다. 이해 겨울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鴻山에서 부친인 권전의 부음을 듣게 되었다. 부친의 3년 상을 마치고 27세(1654)에 학업을 위해 연산 慎獨齋 金集(1574-1656)을 배알하고 회덕으로 同春堂 宋浚吉(1606-1672)에게 사사하며 飛來菴에 거처 하면서 『心經』과 『中庸』을 수학하였는데 이때부터 호서 서인과 학맥의 궤적을 같이하게 되었고 문인들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 서인 학맥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잠시 한산을 떠나 있었다.

29세(1656)에 別試 丙科에 합격하면서 출사하였는데,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보임되면서 그의 宦路는 시작되었다. 다음해(1657) 그는 권열이 陵參奉으로 玄石江[서울 마포 西江]에 있던 권필의 옛 집을 수리하고 살았기에 같이 지냈는데, 주로 서울의 내직에 있을 경우 이곳에서 기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직으로 博士(34세)·典籍(35세)·直長(35세)·工曹正佐郎(36세)·兵曹正佐郎(37세)·持平(53세)·掌令(55세)·獻納(57세)·正言(60세)·執義(60세)·司諫(68세)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江原都事(37세)·茂長縣監(40세)·咸陽郡守(46세)·錦山郡守(56세)를 지냈다.

권양은 30세(1657)부터 38세까지 8년 동안 내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 기거를 하며 고향 한산과 부정기적으로 왕래하였고 이후 강원도 원주, 전라도 무장, 경상도 함양, 충청도 금산 등 외직 생활로 한산에서 거처를 옮겼다. 그가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지역민들의 칭

송이 높았다고 한다. 53세부터 받은 내직의 여러 관직은 비록 제수 되었지만 체직되어 실제 직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58세(1685) 때 금산군수를 마지막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한산 泉洞으로 돌아 왔다.

권필의 피화로 인해 권근으로부터 구축된 안동 권씨의 勳舊의 기반이 와해되고 부친 권전이 서울에서 한산으로 이주한 이후 권양은 초년 시절 수학기 동안 한산에서 생활했지만 형인 권열과 함께 과거를 통해 출사를 하며 선초에 이룩한 훈구적 기반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잦은 이직과 외직으로의 진출은 이 목표를 상실케끔 하였다.

그러나 권양에게도 권력의 한편에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권양이 30세인 1657년(효종8)에 山黨과 戚黨의 반목이 심했던 바, 당시 척당이었던 재상 潛谷 金堉은 권양이 과거시험 당시 시관으로 인연을 맺어 합격을 하자 사람을 시켜 권양에게 공을 들이자 권양은 권세에 아부한다는 의심을 받을까 사례하거나 김육을 만나지도 않자 김육은 권양이 송준길의 문인으로 다른 생각이 있다 의심하여 이후부터 녹록치 않은 벼슬 생활을 하게끔 하였다. 두 번째는 56세인 1683년(숙종9) 금산군수로 제수되자 서울로 謝恩肅拜를 하였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老少의 분당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당시 承旨 宋昌이 노소의 시비에 대해 묻자 권양은 뜰밖에 있는 목화를 가리키며 시골 사람에게 목화의 좋고 나쁨을 물을 수 있지만 조정의 의논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당시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행보를 했다. 그의 신중한 행보는 과거 훈구적 기반의 회복보다는 부친 권전이 한산으로 이주한 원인처럼 혼란한 政爭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를 熟考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0세(1687)에 둘째 아들 霽明齋 權擘(1653-1730)의 謁聖文科 壯元, 62세(1689)에 첫째 아들 遂初堂 權忭(1651-1726)의 增廣文科 급제, 64세(1691)에 넷째 아들 寄傲軒 權僕(1669-1738)의 증광문과 급제, 65세(1692)에 셋째 아들 盤谷 權遂(1656-1718)의 春塘臺文科에 급제

등 6년 동안 네 아들이 연이은 급제는 한산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된 환로의 진출을 통해 지방 명문 문벌가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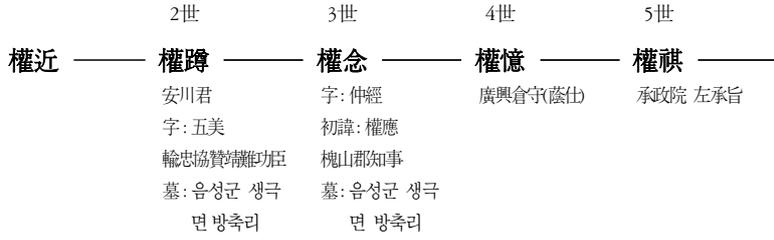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양은 집안 가족들의 단속을 위해 우암 송시열의 ‘保初節易, 保晚節難’을 써서 벽에 걸어 항상 경계하게 하고 지방 명문가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권양은 자손들의 가정교육을 위해 65세(1693)의 늦은 나이에 자손들을 위한 가훈을 저술한 바, 이것이 바로 『영가가훈』이다.

2. 가계⁶⁾

안동 권씨는 三韓의 甲族으로 시조 權幸(?-?)은 본래 신라 宗姓으로 고려 태조가 甄萱과 싸울 때 공이 있어 賜姓되었고 三重大匡 太師에 이르렀다. 권행 이후 고려 시대 안동 권씨 가는 문벌 귀족의 위상을 확립했다.

권양의 집안은 고려 말 ‘一家九封君’의 영화를 누렸던 13세 菊齋 權溥(1262-1346)의 후손에 해당된다. 권보는 安珦의 문인으로 충선왕 때 詞林院 학사로 왕의 충애를 받았고 주자학의 전래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朱子四書集註』의 간행과 보급에 공을 세운 인물로 永嘉府院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이후 집안의 성세는 계속 이어져 권보의 증손자인 陽村 權近(1352-1409)에 이르러 가문의 극성을 이루게 되었다. 아래 도표를 통해 권근 이후의 상황을 제시해 본다.

6) 이하 가계는 「習齋行狀」(李廷龜, 『知足堂遺稿』, 필사본, 개인소장본), 「習齋墓碣銘」(李植, 『知足堂遺稿』, 필사본, 개인소장본), 「習齋先生詩集序」(崔笠, 『習齋集』, 종간38, p.27.), 「習齋先生詩集後跋」(許筠), 「石洲權公墓碣銘竝書」(宋時烈, 『宋子大全』, 종간114, pp.11-13.), 「童蒙教官贈司憲府持平權公行狀」(尹拯, 『明齋遺稿』, 종간136, pp.421-423.)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권근은 조선 開國原從功臣으로 花山君으로 봉해졌고 太宗 원년(1401)에는 왕권 확립에 공을 세워 佐命功臣 4등에 吉昌府院君으로 봉해지고 大제학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여말선초 문학과 도학을 조화시킨 인물로 경학에도 밝아 四書五經의 口訣을 정하였고 『入學圖說』과 『五經淺見錄』 등은 이후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성리학자이면서도 문학을 존중하여 詩賦詞章 등 실용적인 면모를 중시하여 이를 장려하여 한 인물이다.

권근의 아들인 安川君 權躡(1405-1459)은 字가 五美로 세조의 집권에 기여하여 靖難功臣으로 봉해졌다. 이후 형조판서, 호조판서를 역임하며 조선 초기 훈구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권준의 아들과 손자인 權念(初諱 權應)과 權億 때에 와서 知槐山郡事·廣興倉守 등 蔭職으로 진출하면서 과거 화려한 훈구가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었다. 권억의 아들인 權祺의 대에 이르러 문과에 진출하고 承政院 左承旨에 이르렀지만 권기가 출사하던 기묘년(1519) 이후 정세는 사림 세력의 급격한 쇠퇴와 소수 권·척신의 전권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연출하고 있었기에 권기도 김안로의 위해를 피해 도성안의 明禮洞에서 도성 밖의 盤松坊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⁷⁾

권기는 權擘과 權攀 등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권벽은 字가 大手, 호가 習齋로 중종 말년에 문과에 진출하여 藝文館檢閱을 거쳐 弘文館正字에 발탁되었다. 이 때 安名世·尹潔 등 청류 선비들과 교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당시 尹任 등과 친하며 尹元衡 일파를 공박하면서 야기된 乙巳士禍에 화를 입자 모든 교유를 끊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다. 이때 을사사화 이후 권벽은 정치적 입장이 박약해 졌고 정치적 핵심권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었다.

권벽에게는 전부인 해주정씨 소생으로 1남 權韞(別坐)와 후부인 경주

7) 김창호, 「習齋詩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씨 소생인 5남 2녀를 두었는데, 첫째 權韜(縣監), 둘째 權韞(經歷), 셋째 權翰(主簿, 號 草樓), 넷째 權鞏(持平, 石洲), 다섯째 權韞(進士)이다.

이 여섯 형제들 가운데 權翰, 權鞏은 文才로 명성을 얻었지만 권세와 멀리하고 實職을 맡지 않았고 부친 권벽이 동인의 탄핵을 받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며 더욱 핵심관료 범위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권필은 허균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당대 문단에서 東岳 李安訥과 함께 양대 산맥의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았지만 과거에 뜻이 없어 詩酒로 낙을 삼고, 가난하게 살다가 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家産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가 읊은 것처럼 ‘송곳 꽃을 만큼의 땅에 꽃을 송곳조차 없는 가난’의 파탄에 이르기 까지 하였다.

더욱이 권필이 光海君의 妃 柳氏의 아우 柳希奮 등 戚族들의 방종을 풍자한 “宮柳靑靑花亂飛, 滿城冠蓋媚春輝, 朝家共賀昇平樂, 誰遣危言出布衣”의 宮柳詩를 지어 비방하자, 광해군은 大怒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 金直哉의 獄에 연루된 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의 시가 발견되어 親鞫 받은 뒤 혹독한 고문 끝에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더욱 집안의 몰락을 가져왔고 정치적으로 스스로 단절되어 서울의 훈구가의 면모를 잃었으며 새로운 입지 구축에도 실패했던 것이다.

權韜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權僎, 둘째는 權佶(進士), 셋째는 權備(察訪), 넷째는 權佺이다. 이 가운데 넷째 권전은 호가 釋老이며 권양의 부친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전은 광해군 때의 정치적 혼란과 작은 아버지 권필의 被禍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한산으로 이거를 하였고 이때부터 그의 가문은 정치적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한산의 향촌으로 토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권양의 아버지 권전으로부터 한산에 토착하면서 형제인 권열, 權誠(號 養竹軒)와 함께 한산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권양과 권열은 꾸준히 서울 중앙 정계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권양이 내직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서인의 분화가 시작되어 증조부 권벽 시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권양

은 서울 都城圈의 복귀보다는 지방 한산의 토착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택은 현실적 상황에 놓인 최선의 선택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허약한 가문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토착화가 서울 중앙관료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네 아들인 권변·권성·권수·권업 등이 문과에 모두 급제하여 서울 중앙직의 진출이 있었지만 항상 이들의 근거지는 한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후 권양의 증손자 震溟 權攄은 1735년(영조11) 생원시에 오른 뒤 서울 蓮池洞의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月沙 李廷龜의 자손들인 李宅輔·李國輔·李敏輔·李天輔 등과 申光洙·徐有隣·吳瑗·南有容과 교류하는 등 노론계열의 경화 사족들과 어울리게 되었다.⁸⁾

Ⅲ. 『永嘉家訓』의 편찬경위와 내용분석

1. 편찬경위

가훈의 흔적은 이미 중국 고대의 경전이나 문헌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훈이란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지는 가장 오랜 것은 顏之推(531-591)의 『顏氏家訓』이다. 『안씨가훈』은 가족도덕을 비롯하여 학문·교양·사상·생활양식과 태도, 처세와 교제방법, 언어·예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체험과 사례들을 열거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집안을 잘 다스리고 시세에 편승하지 않고 조화와 평화와 안전을 중요시하며, 소박하고 견실한 가정생활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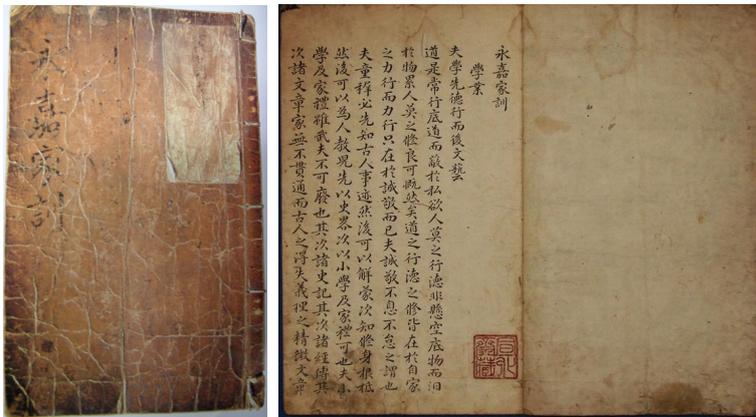
조선시대 가훈은 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는 언어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 등에 대해 조상

8) 정경훈, 「震溟 權攄의 文氣와 天機」, 『東方漢文學』 43집, 동방한문학회, 2010, pp.69-71.

들이 후손에게 강조한 교훈적인 立言垂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家訓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윤리적 교훈으로 그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법도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가족제도에서의 家訓은 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정신적·성리학의 실천적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자손들이 이를 준수하고 계승하기를 기대하고 만든 것이다.⁹⁾

현재 살펴볼 수 있는 판본은 모두 세 가지로 확인이 된다. 첫째, 『영가가훈』¹⁰⁾은 필사본으로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사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기에 製冊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 1> 『永嘉家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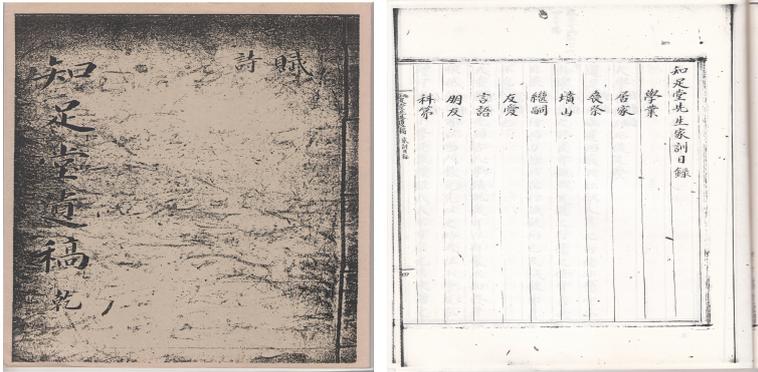
두 번째, 권양의 문집인 『知足堂遺稿』¹¹⁾는 <부록>을 포함해 4권 3책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다. 『知足堂遺稿』 坤, 권4 마지막에 「知足堂先生家訓」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9) 沈貞烈, 「朝鮮時代 家訓 研究 -尾巖·草慮·戒懼菴·顧菴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11, p.19.

10) 『永嘉家訓』, 필사본, 개인소장본.

11) 『知足堂遺稿』, 乾·坤·附錄, 필사본, 개인소장본.

<사진 2> 『知足堂遺稿』



셋째, 『知足堂實記』¹²⁾이다. 이 책은 1927년 후손 權赫洙가 목활자로 편찬한 것으로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閔衡植의 序文과 권력수의 跋文이 있으며 3종의 판본 중 가장 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진 3> 『知足堂實記』



그러나 3종의 판본을 비교해 보면 제목만 다르고 내용과 편차 등은 모두 같다. 『영가가훈』과 「지족당선생가훈」은 비슷한 시기에 필사가 이루어졌거나 『지족당유고』가 권양의 사후에 필사되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12) 권혁수 편, 『知足堂實記』(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511-07-45), 1927.

『영가가훈』이 가장 먼저 완성되었고 『지족당유고』에 수록된 「지족당선생가훈」은 『영가가훈』을 바탕으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대 자손들이 대량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족당실기』도 『영가가훈』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가가훈』에 수록된 가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學業·②居家·③喪祭·④墳山·⑤繼嗣·⑥友愛·⑦言語·⑧朋友·⑨科第·⑩仕宦·⑪分財·⑫宴會·⑬富貴·⑭食色·⑮庄獲·⑯續論·⑰後續論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後續論이 『영가가훈』의 저술 배경임을 감안한다면 내용은 모두 16단락이다.

권양의 『영가가훈』은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고 후대 자손들의 실천운리를 제시한 하나의 지침서였다. 권양은 고려 말 권보 때부터 一家九封 君의 영예로 가문이 비로소 성대해졌고 권근 때에 부자의 현달과 권벽과 권필 부자의 文才는 문호의 큰 영광이었고 다시 융성해질 것을 기대하였다.¹³⁾ 그러나 권양은 영광스러운 가문의 복귀에 앞서 자손을 바르게 가르쳐 훌륭한 인격자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물이 『영가가훈』이었던 것이다. 권양은 『영가가훈』의 편찬 배경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불초한 자손 양에 이르러 형제와 자질(子姪) 및 종손(從孫) 등 8, 9인이 과명으로 다시 성해지니 후자가 말하기를 “비록 조상의 쌓은 덕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가득차고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 같이 하고 박빙을 밟는 듯하면서 문호를 보전하는 것을 백방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공손하고 조심하며 겸손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좋은 계책이 없었다.…… 양이 4남 2녀를 두고 손자가 여덟 명이요, 외손은 일곱이나 너무 어리기도 하고 멀리 있다. 어려서 가르침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모이기도 어렵고 또 내가 병으로 날마다 쇠약해지고 깊어가니 살 날이 많지 않아 하나하나 면대하면서

13) 權讓, 『永嘉家訓』, 「後續論」, “吾鄉貫永嘉, 永嘉之權, 至菊齋先生, 一家封君者九, 門戶始盛大, 古今無比. 至陽村先生, 父子兄弟及孫, 連躡卿宰, 且以文章, 大鳴於世. 至習齋先生父子, 亦以文章, 繼鳴於世, 嗚呼盛矣.”

가르침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계칙을 써서 여러 자식과 손자에게 보이
나 마땅히 복응하고 따르라.¹⁴⁾

권양은 번창해지는 자손들은 조상 음덕, 곧 후광이나 文才가 아닌 조
상들이 평소 실천했던 ‘恭謹’과 ‘謙損’이라 여겼다. 곧 가문의 부흥은 조
상의 음덕보다는 자신들의 행실, 恭謹과 謙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어나는 자손들과 연로해가는 자신의 신변으로 자손들을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여러 고민 끝에 가훈을 저작하게 되었다.

권양은 자손들의 과거 급제와 점점 번창해가는 모습을 보고 과거 가
문의 부흥을 여러 가지 노력한 바,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씩 일가의 자
체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고 『소학』과 『주자가례』를 강의하였다.¹⁵⁾

권양이 두 서적을 강조한 것은, 『소학』은 修養과 律身을 비롯한 가정·
향리·국가의 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규범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고 三綱
五倫의 실천에 초점을 제시한 서적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의 공부하는
교재의 기능과 가훈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주자가례』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권양이 생존했던 17세기
는 임병양난으로 신분적 질서를 복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학이 발
전하였다. 이때 宗法制와 儀禮를 중시하였다. 종법제도는 가족 사이의
父系를 중심으로 질서를 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집안에서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무
엇보다도 집안의 대를 잇는 繼嗣문제를 중요시 여긴다. 대를 이을 자식
이 없으면 養子를 들여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후손들이 가문을 빛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또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문

14) 權讓, 『永嘉家訓』, 「後續論」, “至不肖孫讓, 兄弟子姪, 及從孫等八九人, 科名復盛, 人或稱之, 雖曰, 祖先積德之所致, 然吾日夕懼其盛滿, 如臨深淵, 如履薄冰, 保存門戶, 百爾思之, 恭謹謙損之外, 無他善策…… 讓四子二女, 姓孫男八人, 外孫男七人, 或幼穉, 或在遠, 非但幼不能聽教, 一時聚會亦難. 且吾衰病日深餘日無多, 難以一一面戒之. 故書若干, 戒飭之言, 以示諸子諸孫, 宜服膺而遵行.”

15) 權讓, 『永嘉家訓』, 「後續論」, “朔望, 一家子弟, 會于一處, 必講小學及家禮.”

중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였다. 이러한 가문을 결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의례이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예학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특히 喪禮와 祭禮를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영가가훈』에서 「喪祭」와 「繼嗣」 등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내용분석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가가훈』이 어린 자손들을 위한 예절 교육과 교훈 목적으로 저술된 기초교재로 學業·居家·喪祭·墳山·繼嗣·友愛·言語·朋友·科第·仕宦·分財·宴會·富貴·食色·庄獲·續論·後續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가가훈』은 유가적 사상을 기반으로 저작되었다. 곧 유가적 중법제도와 충효의 사상적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 자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얻었던 사람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격언적 내용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영가가훈』에는 유가 경전이나 심오한 철학 사상을 함유한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생활과 관련 깊은 내용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권양이 저술했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재 이념적 상황이 상이하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본장에서는 修己와 學業, 治家, 處世 등으로 나누어 현대적 이념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修己와 學業

권양은 어려서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했다. 부친 권전이 관료생활을 포기하였고 서울에서 한산으로 거주한 이후 생활형편은 매우 곤궁하였다. 그러나 권양은 어려운 가정상황에서도 백씨 권열에게 수학하여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급제 이후 8년 동안 내직에 있었지만 40세 이후부터 56세 금산군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 주로 외직으로 전전하였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관료 생활과 내직보다 외직으로 전전한 기간이 많았던 권양은 자손들에게 화려한 관료 생활에서 오는 풍부한 지식습득보다는 몸소 체험하면서 선비의 궁지와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修己를 통해 品德의 수양과 학업 자세에 대해 강조한 가훈들이 눈에 띈다. 그 중 몇몇 조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덕행을 먼저 배운 이후에 문예를 배우라.[學先德行, 而後文藝]

도를 실천하고 덕을 닦는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다만 노력은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정성을 다해 공경을 한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¹⁶⁾

권양은 어린 아이들의 인간성을 살리는 덕을 쌓는 공부를 먼저 한 뒤 경서와 역사서 등 문예 공부를 주장하였다. 평소 소년들의 초보 학습서인 『소학』을 강조했던 권양은 개인 도덕의 수양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대학』을 비롯한 깊은 학문과 나아가 문예적 교육을 흡수할 수 있다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기초 공부를 강조하며 지식공부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이후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빈천하다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貧賤勤業]

부귀하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는 자는 두렵지 않지만 빈천하면서 학업에 힘쓰는 사람은 두려워 할 만 한 사람이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재앙은 부귀한 집안에서 많이 나오고 호걸스런 사람은 빈천한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빈천한 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¹⁷⁾

16) 權讓, 『永嘉家訓』, 「學業」, “道之行德之修, 皆在於自家之力行. 而力行只在於誠敬而已. 夫誠敬, 不息不怠之謂也.”

17) 權讓, 『永嘉家訓』, 「續論」, “富貴而驕奢者, 不足畏也. 貧賤而勤業者, 可畏也. 自古人之禍患, 多出於富貴之家, 人之豪傑, 多出於貧賤之中, 世之必陵侮貧賤者, 非衣.”

앞서 언급했듯이 권양은 매우 늦은 나이에 과거에 올랐지만 이후 관직생활도 평탄치 못했다. 그는 자신을 회고하면서 어렸을 때 궁색한 삶과 행동도 느리고 재능도 뛰어나지 못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권양은 좌절하지 않고 發奮하며 더욱 노력하여 현재의 자신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하였다.

여타의 가훈이 선현의 말을 인용하고 경전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언급하며 그 사람의 처신과 행동을 배울 것을 강조하지만 권양은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경전의 인용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며 현재의 어려움 보다 노력 이후 새로운 미래에 더욱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 인용문에도 보인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라.〔以死爲限〕

내가 어렸을 때 어려워 남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고 성품도 둔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내가 일찍이 강개하고 발분하여 친신만고 죽기 살기로 과거의 학업에 온 힘을 쏟아 다행히 과거에 오를 수 있어 관직이 3품 당하관에 이르렀다.¹⁸⁾

어려운 생활고와 부친의 사망으로 학업에 회의를 느꼈던 권양은 좌절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삼고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생애에서도 밝혔듯이 27세의 늦은 나이에 멀리 떨어진 회덕의 송준길을 찾아 직접 사사하며 학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학업에 큰 의미를 두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처음 학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힘들다. 이 괴로움을 견디지 않고 편안함만 찾았다면, 권양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죽기 살기로 학업에 대한 그의 열정과 굳은 마음, 인내는 자신의 입신양명 뿐만 아니라 이후 한산 지역의 세거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외분의

18) 權讓, 『永嘉家訓』, 「續論」, “吾少也困窮, 故人皆賤之, 性亦遲鈍, 故人皆笑之, 吾嘗慷慨發憤, 千辛萬苦, 以死爲限, 着力科業, 幸而登第, 官至堂下三品.”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는 立志의 자세를 유지함은 학업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의 한 방편일 것이다.

2) 治家

권양의 연보를 살펴보면, 출사하기 전인 24세 때에 부친 권전의 부음 이후부터 어머니 양친 허씨를 계속 봉양하였다. 그가 서울 내직에 있을 때나 40세 이후 무장현감, 함양군수 등 외직으로 나갔을 때도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을 정도로 효심이 남달랐다. 그리고 12세 때 권열의 병이 위독했을 때 권양이 직접 약을 달여 올리며 밤낮으로 간호한 일이나 30세 때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보임되자 권열과 함께 종조부 권필의 집에서 우애 있게 함께 지낸 일 등 백씨 권열 등 형제의 우애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보인다.

권양은 가정에서 부모·형제·자식·친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수행하면 나아가 문중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修己를 통해 그것을 외연으로 확대하여 治家를 실천하고자 하는 권양의 의도를 다음 자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① 효도가 우선이다.[先以孝悌]

남자가 항상 업으로 삼는 것은, 첫 번째 효도로 어른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학업에 힘써 입신하는 것이며, 세 번째 수확하는 일에 힘써 (부모를) 우러러 섬기고 굽어 봉양하며 (처자식을) 추위에 열게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¹⁹⁾

② 취향은 다르더라도 우애는 같아야 한다.[友愛不可同異]

형제란 기운을 같이한 사람이고 같이 젖을 먹었던 사람이며 사촌과 육팔촌은

19) 權讓, 『永嘉家訓』, 「居家」, “男子恒業, 先以孝悌, 以盡事長之道. 次勤學業, 立身揚名. 次勤穡事, 仰事俯育, 毋使凍餒.”

조상을 본다면 고르게 같은 자손이다. 그 우애와 돈목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금수도 오히려 같은 무리를 사랑하고 서로 따르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친족에 있어서겠는가?…… 혹은 말하기를 형제와 숙질 사이에는 취향이 같아야 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옛 사람들의 취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취향은 비록 같지 않더라도 그 우애는 같지 않아서는 안 된다.²⁰⁾

권양에게 治家의 첫째 덕목은 孝悌와 友愛이다. 효제와 우애는 유교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가장 보편적인 덕목이고 가족을 보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두 가지는 가정을 지탱하는 정신적 원리인 것이다. 부모의 효도를 통해 立身揚名과 가족 부양을 할 수 있다 여기고 있다.

우애에 대해, 권양은 우애의 범위를 ‘형제’에 한정하지 않았다. 과거 향촌지역에서 사촌·육촌·팔촌 등 집합적 거주에 따라 형제를 넘어 친족, 가문으로 확대하였다. 권양은 다수의 친족·가문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비록 다르더라도 항상 존경하고 이해하여 우애를 나누며 좋은 동반자 관계를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형제, 친족, 가문에 대한 의식은 조선시대 종법의 활성화에 있었다. 종법제도는 가족 사이에 父系를 중심으로 질서를 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안에서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자손을 낳아 계통을 잇는 繼嗣 문제는 가족, 친족, 가문의 화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양도 계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取人子而爲己子]

자식이 없으면 친형제의 자식에서부터 소원한 데 이르기까지 택해 후사를 잇

20) 權讓, 『永嘉家訓』, 「友愛」, “兄弟者, 同氣人也, 共乳人也, 四寸與六八寸, 以祖先視之, 則均是子孫也. 其友愛敦睦, 此自然之理也. 夫禽獸尚愛其同類, 而相隨之, 況人之於親族乎. …… 或云, 兄弟叔姪, 志趣不可異同, 此則不然, 考諸古人之趣向, 可知之矣. 志趣雖不同, 其友愛, 則不可同異.”

게 하고 이미 대를 이었다면 같은 몸에서 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 동기의 자식을 버리고 조금 먼 사람을 취해 자식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릇 자식이라는 것은 내 몸을 받는 것이요, 내 집안을 전승하는 것이니 남의 자식을 취해 나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 돌아보면 중요하지 않는가? (나와의) 원근을 고려치 않고 택하는 것이 옳으며 이미 자식으로 삼았다면 흘러 다니는 말에 현혹되거나 파양(罷養)하기에 이르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이미 양자를 취한 뒤에 혹시 후처를 얻어 자식이 있더라도 먼저 정한 양자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옳다.²¹⁾

권양은 평소 『주자가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위의 인용문도 봉건사회 종법제도의 한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권양의 생존시기에는 禮訟論爭이 극성을 이루고 있던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예민한 문제였고 각종 서적의 인용으로 당파적 이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양은 어려운 경전이나 각종 서적을 인용하지 않고 매우 간단명료하게 繼嗣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자를 들여 繼嗣한다는 것은 부계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문을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혈육 의식이 남달랐던 조선시대에 入養은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혈족에서 입양했느냐는 점이다. 그러므로 입양할 때 養父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부터 양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입양 후 양부가 후처를 들여 그 소생이 있는데 있다. 혈연을 강조하다보니 뒤늦게 자식을 얻게 되면 입양했던 자식을 罷養하고 다시 원래의 生父에게 보내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권양은 입양을 반드시 가까운 혈족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일단 양부

21) 權讓, 『永嘉家訓』, 「繼嗣」, “無子則, 自親兄子弟, 至疏遠, 擇爲繼嗣, 而旣爲繼嗣, 則視同己出. 或云舍其同生之子, 取稍遠者爲子, 不可, 此不然也. 夫子者, 體吾身也, 傳吾家也, 取人子而爲己子, 顧不重耶. 不顧遠近, 擇之可也, 旣以爲子, 所惑於流言, 或之罷養, 甚不可也. 旣定養子之後, 或取後妻而有子, 以先定養子, 奉祀可也.”

가 양자를 들었으면 親疎를 떠나 자신의 자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양부가 양자한 이후에 후처를 얻어 소생을 얻었더라도 파양은 있을 수 없고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적통 자식으로 인식하였다. 양자가 자신과의 혈연관계가 멀지만 앞서 우애를 주장한 것처럼 같은 조상에서 파생한 가문의 한 사람이므로 자신의 자식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산소에 대한 절목이다.

① 마을 가운데 산소 쓰지 마라.[村中勿用]

산소자리는 평지나 큰 마을 가운데를 선택하지 말라. 평지는 단지 물기가 있어 습할 뿐만 아니라 五害[홍수·나무뿌리·바람·벌레·안개]를 피하기 어렵다. 큰 마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평생 남들에게 원망을 산 적이 없는데 죽은 뒤에 원망을 살 일이 있겠는가? 여러 사람의 원망을 얻으면 비록 길지라도 오히려 흉지가 될 것이다.²²⁾

② 무덤에 사치하지 말라.[簡略墓道]

내가 평생을 간략하게 살았고 또 번잡한 것을 싫어하므로 묘도를 번잡하게 다스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것과 같이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망주석은 매우 불가하다.²³⁾

권양의 종조부인 권필은 당시 세도가들의 산소 치장과 立碑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은 바 있는데,²⁴⁾ 권양도 산소에 대해 주목할 만한 주장을 남기고 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소자리를 마을 한 가운데에 쓴다면, 아무리 좋은 명당자리라도 흉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살아있는 자의 원망을 듣는 땅은 흉지’라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

22) 權讓, 『永嘉家訓』, 「墳山」, “擇山, 平地與大村中, 勿爲用之. 平地則, 非但水濕, 難避五害, 大村中則, 吾平生, 未嘗取怨於人, 死後其可取怨乎. 若取衆怨則, 雖曰吉地, 反吉爲凶.”

23) 權讓, 『永嘉家訓』, 「墳山」, “誌石, 沙器甚難 刻石可也. 吾平生簡略, 且厭煩雜, 治墓道煩難, 亦匪事死如生之道也. 望柱石甚不可.”

24) 權鐸, 『石洲集』 卷2, 「忠州石效白樂天」.

다. 그러나 권양은 이보다도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향촌 공동체 사회에서 지역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최우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형제·친족과의 화목이 반드시 혈족에만 한계성을 띄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화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碑誌石 난립에 대해 권양은 가정의 규모에 적합하게 절약하고 검소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비록 立碑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가문의 부귀현달이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산소 주변에 치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예절은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장례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²⁵⁾는 주장에서 보듯이 권양도 內實으로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양은 산소에 대해 검소만 강조하지 않았다. 정도에 넘는 사치는 곧 위기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항상 근검절약을 강조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주색과 사치하지 말라.[勿好酒色華侈]

무릇 주색은 사름을 빠뜨리는 구덩이요 함정이니 반드시 먼저 끊어야 하고 바둑, 장기와 매사냥 말 타기 등도 좋아하지 말라. 사는 집이 크고 화려하며 의복이 화사하고 음식이 맛 나는 것은 모두 경계하라.²⁶⁾

② 사치품 좋아하지 말라.[勿好奇玩]

여자들은 광대들의 놀이나 잡전(雜傳)을 보지 말며 기이한 애완물이나 보석, 재물을 좋아하지 말라. 사귀며 놀기 좋아하지 말고, 일가의 작은 일까지 말해 전하지 말라. 일가 친족들을 시샘하며 이기려 하지 말고 뜯소문을 만들지 말라.²⁷⁾

25) 『論語』, 「八佾」, “禮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26) 權讓, 『永嘉家訓』, 「居家」, “夫酒色, 陷人之坑穽, 必先絕之, 至於博奕鷹馬之類, 亦勿好着. 第宅之宏麗, 衣服之華侈, 饌膳之豐美, 皆戒之.”

27) 權讓, 『永嘉家訓』, 「居家」, “女子, 勿覽倡伎雜傳, 勿好奇玩寶貝, 毋好交遊, 毋傳說一家細事, 毋忌克一家親族, 以作浮言.”

③ 아무리 큰 연회라도 낭비하지 말라.[大宴毋過]

큰 연회의 음식그릇 수는 열다섯을 넘지 말고 탕의 숫자는 다섯 가지를 넘지 말며 연회도 번잡하고 자주 하지 말라.²⁸⁾

④ 무리한 혼수 하지 말라.[勿爲過侈]

여자는 혼인 및 혼행길, 수연 외에 비단 옷을 입지 말라. 혼수는 집 사정에 맞게 하고 지나친 사치를 위해 선대의 논밭을 팔지 말라.²⁹⁾

권양에게 治家의 핵심 중 하나는 儉素이다. 家産의 증산을 위해 治産보다 검소가 우선일 것이다. 권양은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으로 사치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심지어 굶주리거나 병환에 쓸 약재라면 지나친 지출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부모의 식사라도 과도한 음식 봉양은 지양할 정도로 근검절약을 강조하였다.³⁰⁾ 평생 청렴과 간소한 삶을 살아온 권양은 주색과 바둑 장기, 매사냥, 신기한 애완동물, 패물 등 과도한 취미생활과 의식주의 사치는 번창해 가는 가문과 자손들에게 경계해야 할 부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큰 연회도 음식그릇 수는 열다섯을 넘지 말고 탕의 숫자는 다섯 가지를 넘지 말라는 권양의 훈계는 그가 평소 얼마나 검소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좋은 대목이다. 그는 어머니의 수연이나 자식의 혼인식에도 이와 같이 절실한 검소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治家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혼수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권양은 혼수는 집안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혼수를 위해 선대 재산까지 사용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다. 자식들의 혼수를 위해 과도한 혼수비용 지출은 현재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8) 權讓, 『永嘉家訓』, 「宴會」, “大宴器數, 毋過十五, 湯數不過五品, 宴會亦勿頻數爲之.”

29) 權讓, 『永嘉家訓』, 「居家」, “女子, 婚姻及新行壽宴外, 勿着錦衣. 婚具稱家有無而已, 勿爲過侈, 以賣先世田土.”

30) 權讓, 『永嘉家訓』, 「居家」 “晨昏必定省, 朝夕甘旨. 雖乏, 勿爲苟苟借乞, 至於飢餒, 及病患藥物, 則雖苟苟借乞可也.”

3) 處世

권양은 늦은 나이에 과거에 올랐지만 조상의 음덕으로 蔭仕로 재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곧 20여 년의 관직 생활은 그가 평소 恭謹을 생각하며 득의양양하게 남에게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겸손했기 때문이다.³¹⁾ 또 권양이 관료생활 중에는 봉당의 폐해가 극심한 터라 온전히 관료생활을 마치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또 18년 동안 외직으로의 관료 생활은 오히려 그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청렴한 관직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다음 인용문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① 벼슬이 높으면 위험하다.[位高則危]

벼슬이 귀한 곳에 이르고 지위가 높아지면 위태롭다. 반드시 높은 것을 사양하고 낮은 데에 있으면 화를 면할 수 있다.³²⁾

②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得易失易]

만약 부귀공명을 쉽게 얻었다면 그것을 잃는 것도 반드시 쉽다. 만약 비리로 그것을 얻었다면 반드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잃을 것이다.³³⁾

③ 여력이 있으면 백성들을 도와라.[餘儲賜給]

물력이 두루 만족스럽고 남은 저축이 있다면 백성의 부역을 돕는데 사용하거나 홀아비와 과부를 구제해 주며 관사의 집을 수리하고 조정의 용품을 마련한 다음에 자신의 집 제기와 친족 혼인, 또는 상사나 궁한 친척을 구해 주는 곳에 쓰라.³⁴⁾

31) 權讓, 『永嘉家訓』, 「仕宦」, “登科者, 慎勿揚揚自得以驕人, 必思祖先積德, 一以謙損爲主.”
 32) 權讓, 『永嘉家訓』, 「仕宦」, “官爵至貴, 而位高則危矣. 必辭尊而居卑 可以免禍.”
 33) 權讓, 『永嘉家訓』, 「續論」, “富貴功名, 若得之易, 必失之易. 若以非理而得之, 必以非理而失之.”
 34) 權讓, 『永嘉家訓』, 「仕宦」, “物力周足, 若有餘儲則, 或補用民役, 或賜給鰥寡, 或修理官舍, 或備公家器用, 其次吾家祭器, 親族婚喪, 及救給窮族等處.”

④ 백성들에게 물건 강매 말라.[勿以興販]

무릇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구휼한다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고팔지 말라. 그 사고파는 것 때문에 백성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³⁵⁾

菊齋 權溥의 이야기가 속담으로 전해 오는데, 권보는 항상 맑은 물을 마시지 않았고 길을 갈 때는 正路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권보가 사치스런 음식을 사양하고 편한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하며 항상 겸손하고 조심했기 때문이다.³⁶⁾ 권양은 평소 “졸렬함을 지키고 분수에 편안코자 하는 것이 나의 본바탕이자 가법이다.”³⁷⁾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호 知足堂처럼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항상 만족하며 貪官의 자세를 거부했기에 오히려 비교적 오랜 관료 생활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벼슬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손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권양은 함평, 무장, 금산 등의 방백으로 근무하면서 선정으로 칭송을 받을 만큼 청렴한 관리였다. 여력이 있으면 가문을 돕는 것 보다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권양의 자세는 금산군수 재직 시절 清簡愛民善政碑의 존재가 관례적 행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다음 대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지 말라.[不可請囑]

무릇 선비로 과거에 나가는 사람은 시관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고 시관이 된 자는 사적인 정으로 등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뽑는 것은 매우 공정한 도리인데,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등락을 하는 것이 옳겠는

35) 權讓, 『永嘉家訓』, 「續論」, “凡居官, 稱以賑民, 勿以零碎之物興販, 其所以興販, 販民反以貽弊於民間也.”

36) 權讓, 『永嘉家訓』, 「後續論」, “諺傳菊齋公, 常時不飲清水, 行路不由正路云, 其他謙謹, 從可想矣.”

37) 權摠, 『遺事』, “先生曰, 守拙安分, 是吾本質與家法.”

가? 다만 국법이 지엄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³⁸⁾

② 재산분배는 의롭게 하라.[分執惟義]

논밭과 노비를 나누거나 매매할 때는 오직 의리가 있을 뿐이다. 또한 광대하게 접거하여 자손의 기업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손의 기업이 풍족하면 하나는 서로 다투어 송사를 벌여 반드시 불화에 이르고 심한 경우는 저주의 옥사가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헛되게 사치스런 습성이 자라 학업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주색의 자금이 되니 그것이 무익하고 유해함이 명백하다.³⁹⁾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도 지금 못지않은 부정행위가 있었다. 시관을 매수하거나 정과의 이해득실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은 이미 누누이 알려진 사실들이다. 과거에 나가는 자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해 換手하는 경우는 빈번히 있어 하나의 관례가 되었지만 調聖試 조차도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던 당시의 시폐는 科業을 권장하는 권양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므로 권양은 자손들에게 아무리 과거가 중요한 일이지만 부정행 방법으로 합격하는 것은 공을 덕목으로 하는 과거시험에서 私를 앞세운 결과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라 하였다.

『영가가훈』에는 농장과 노비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권양이 한산으로 이주한 이후 20여년의 관료 생활과 네 아들의 과거 급제 등 한산 지역을 기반으로 향촌사족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권양은 증가하는 가문 재산의 분배와 경영에 대해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손들 사이의 분란과 송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며 손쉽게 물려받은 재산은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망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권양이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

38) 權讓, 『永嘉家訓』, 「科第」, “凡士之赴舉者, 不可請囑於試官, 爲試官者, 勿爲循私取捨, 國家設科取士, 至公之道, 安可用私私情取捨. 非但國法至嚴, 亦殃及其身.”

39) 權讓, 『永嘉家訓』, 「庄獲」, “田民分執及買賣, 其於取捨, 惟義所在而已. 亦不可以廣占, 以爲子孫之基業, 子孫基業豐足則, 一則互相爭訟, 竟至不和, 而甚者有詛呪之獄, 一則徒長侈習, 不務學業, 而反爲酒色之資, 其無益而有害, 明矣.”

하지 않고 이외의 재산에 대해 사회 환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義理에 합당한 분배와 경영은 당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준 가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 평생 청렴한 삶을 살아온 자신과 앞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할 초보관리인 네 명의 아들에게 선조들의 모범적 행위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나아가 가문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知足堂 權讓과 그의 저서 『永嘉家訓』에 대한 연구이다. 권양은 한산의 작은 향촌에서 태어났지만 고려 말 ‘一家九封君’의 영화를 누렸던 국제 권부의 후손이었다. 그는 9대조 권근과 증보부인 권벽, 종조부인 권필 등 쟁쟁한 문벌가의 집안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권벽 이후 土禍와 종조부 권필의 광해군 비방 사건 연루로 인해 정치적 몰락을 가져왔고 스스로 단절되어 서울의 훈구가의 면모를 잃었으며 새로운 입지 구축에도 실패했다.

권양이 내직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서인의 분화가 시작되어 증조부 권벽 시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서울 도성권의 복귀보다는 충청도 한산지방의 정착을 선택하였다. 이런 선택은 현실적 상황에 놓인 최선의 선택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허약한 가문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의 네 아들 권변·권성·권수·권업 등이 문과에 모두 급제하여 한산 지역에 새로운 문벌 형성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곧, 부친 권전이 한산에 새로운 거처지를 만든 이후 서울로부터의 이전과 한산 지역의 새로운 문벌형성은 권양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양은 65세의 나이에 네 아들의 과거 급제를 보고, 당시 혼란한 政爭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를 熟考하며 집안 가족들의 단속을

위해 『영가가훈』을 저술하였다. 권양의 『영가가훈』은 조선시대 여타 가훈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 등에 대해 조상들이 후손에게 강조한 교훈적인 立言垂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권양은 영광스러운 가문의 복귀에 앞서 자손을 바르게 가르쳐 훌륭한 인격자로 육성하고자 하여 『영가가훈』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권양은 번창해지는 자손들은 조상 음덕, 곧 후광이나 文才가 아닌 조상들이 평소 실천했던 ‘恭謹’과 ‘謙損’이라 여겼다. 가문의 부흥은 조상의 음덕보다는 자신들의 행실, 恭謹과 謙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손들과 연로해가는 자신의 신변으로 자손들을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여러 고민 끝에 가훈을 저작하게 되었다.

『영가가훈』은 後續論을 제외한 16편의 『영가가훈』은 ①學業·②居家·③喪祭·④墳山·⑤繼嗣·⑥友愛·⑦言語·⑧朋友·⑨科第·⑩仕宦·⑪分財·⑫宴會·⑬富貴·⑭食色·⑮庄獲·⑯續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양이 저술했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재 이념적 상황이 상이하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 자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얻었던 사람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한 격언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가가훈』은 修己, 治家, 處世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修己와 學業에서는, 늦게 시작한 관료 생활과 내직보다 외직으로 전전한 기간이 많았던 권양은 자손들에게 화려한 관료 생활에서 오는 풍부한 지식습득보다는 몸소 체험하면서 선비의 긍지와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둘째, 治家에서는, 孝悌와 友愛를 강조하였다. 유교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가장 보편적인 덕목이고 가족을 보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부모의 효도를 통해 立身揚名과 가족 부양을 할 수 있다 여기고 있었다. 繼嗣에 있어 권양은 반드시 가까운 혈족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일단 양부가 양자를 들었으면 자신의 자식이 된

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양부가 양자한 이후에 후처를 얻어 소생을 얻었더라도 과양은 있을 수 없고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적통 자식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주장은 가족의 외연을 넓혀 친족의 우애를 확인하는 대목이었다. 또 마을 주민들의 편리를 해하는 산소 축조와 거대한 비석의 제작은 오히려 지역 주민과의 반목을 불러오므로 지역공동체와의 화합을 위해 무덤과 비석에 사치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處世에서는 청렴한 관료 생활과 재산의 합리적 분배를 강조하였다. 권양은 늦은 나이에 과거에 올랐지만 조상의 음덕으로 蔭仕로 재직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외직으로 전전하였지만 지방 수령으로 반드시 금기해야 할 사항과 청렴한 생활과 벼슬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권양은 증가하는 집안 재산의 분배와 경영에 대해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손들 사이의 분란과 송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며 손쉽게 물려받은 재산은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망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參考 文獻>

『論語』

- 權 讓, 『永嘉家訓』, 필사본, 개인소장본.
——, 『知足堂遺稿』, 필사본, 개인소장본.
——, 『知足堂實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27.
權 擘, 『習齋集』, 『韓國文集叢刊』 38, 韓國民族文化推進會.
權 鐸, 『石洲集』, 『韓國文集叢刊』 75, 韓國民族文化推進會.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4, 韓國民族文化推進會.
尹 拯, 『明齋遺稿』, 『韓國文集叢刊』 136, 韓國民族文化推進會.
舒川郡, 『舒川郡誌』, 1929.
- 金種權, 『名家の 家訓』, 家庭文庫社, 1977.
김창호, 『習齋詩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柳岸津,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박상희, 『家庭에서의 子女教育에 關한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孫仁銖·李元浩, 『韓國人の 家訓』, 文音社, 1984.
孫直銖, 『朝鮮時代 女性敎訓書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沈貞烈, 『顏氏家訓 研究』,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朝鮮時代 家訓 研究 -尾巖·草慮·戒懼菴·顧菴을 중심으로』,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이해준, 『초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 신서원, 1998.
정경훈, 『震溟 權攄의 文氣와 天機』, 『東方漢文學』 43집, 동방한문학회, 2010.
정낙찬·이동기·채휘균, 『한국의 전통 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鄭茂坤, 『조선시대 가훈서의 교육학적 해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A Study on Jijokdang(知足堂) Gwon yang(權讓)'s 『Yeongga-gahun(永嘉家訓)』
/ Jung Kyung Hun*

Jijokdang(知足堂) Gwon yang(權讓) is still not known in academic circles. And For his 『Yeongga-gahun(永嘉家訓)』, this book was to analyze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the discovery and analysis of new data, because very worth it.

He was born in a good distinguished family. But his life was very difficult. He moved to Hanyang in the province was formed and a new good family.

『Yeongga-gahun(永嘉家訓)』, this book is mad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children to books. However, you should keep the children, as well as tutorials for all family members, respectively. Why he wrote this book, and the revival of family harmony and order of the locals. And a new hope for the revival of the family in this area because it.

『Yeongga-gahun(永嘉家訓)』 is by far there are three different edition. 『Yeongga-gahun(永嘉家訓)』 is similar to the other family precepts about difficult and did not quote. 『Yeongga-gahun(永嘉家訓)』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and philosophical thought little difficult. This book is about the most basic character education and culture will bring up. This book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your body and mind wipes. Second, the study. Third, the reigning house. Fourth, the conduct of life.

【Key words】 Jijokdang, Gwon yang, Yeongga-gahun, your body and mind wipes, the study, the reigning house, the conduct of life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일 : 6월 9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Lecturer of Chungnam National Univ. / juilam@hanmail.net